여수단지, 합성수지 수출길 "숨통"

2007년 하반기에 여천일반부두 착공 … 컨테이너 7만3000TEU 처리

광양항 여천일반부두가 민간투자로 2007년 하반기 착공된다.

해양수산부는 12월20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민간사업 실시협약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여천민자부두와 2007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2007년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0년 완공될 예정인 광양항 여천일반부두는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게 되며 총사업비 572억원이 투입돼 2만톤급 2선석으로 건설된다.

여천민자부두는 선사와 하역사를 출자자로 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투자비를 조달하게 되며 정부로부터 운영수입에 대한 보장없이 34년간 부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여천일반부두가 준공되면 일반화물 연간 최대 104만3000톤과 컨테이너 화물 7만3000TEU(20피트 컨테이너 7만3000개)를 각각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1>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